

국내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출판에 대한 양적 분석

A Quantitative Analysis of Scholarly Monograph Publishing by University Presses in Korea

심 원 식 (Wonsik Shim)*

도 슬 기 (Seul Ki Do)**

이 선 애 (Sun Ae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2.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4. 결 론 |

초 록

학술단행본은 지식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술연구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대학출판부는 상업성이 낮은 학술단행본을 발간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학술단행본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기반으로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출판부 출판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총 21,015건의 서지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학술단행본 여부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단행본 출판은 1970-80년대의 완만한 상승기를 거쳐 199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술단행본보다 어학교재, 강의교재 및 교양 관련 서적 발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출판부 간의 출판 규모 및 학술단행본 발간 비중에서도 큰 격차가 있다. 저자 유형에 있어서는 1인 저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번역서의 경우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편집 저서의 경우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주제분야별 출판 분석에서는 사회과학 도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분야별로 학술단행본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인다.

ABSTRACT

Scholarly monographs have been a main vehicle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transfer as well as an important research outcome. University presses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the last bastion for scholarly monographs that have low commercial prospect.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a systematic data analysis regarding scholarly monograph production by university presses in Korea. In this paper, we collected bibliographic records of university presses' monograph publications between 1950 and 2015 us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online catalog system. A total of 21,015 records were used in the analysis. In particular, for monographs published between 2001 and 2015, we categorized them into scholarly monographs and non-scholarly monographs. University presses' publishing showed sharp increase during the 1990's but is in decline after its peak in 2005. University presses seem to have engaged in publishing more non-scholarly monographs than scholarly monographs by a ratio of 6:4. Large university presses in size seem to produce higher proportions of scholarly monographs than smaller presses. In terms of authoring types, single authorship accounts for the highest proportion and on the increase. However, edited books are losing ground as translated books seem to hold steady. Monographs in social sciences have been published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subject areas as there seem to be significant discrepancies among subject areas in terms of the scholarly monograph proportion.

키워드: 대학출판부, 학술단행본, 학술커뮤니케이션, 양적분석

University Press, Scholarly Monograph, Scholarly Communication, Quantitative Analysis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wonsikshim@skku.edu) (제1저자,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 과정(sinhwask@gmail.com)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 과정(leesunae@ulsan.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8월 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09-327,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309]

1. 서론

학술단행본과 학술지 논문은 학술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둥(pillars)이다. 물론 분야에 따라 학술대회 자료집(conference proceedings)이나 연구보고서(working papers)와 같은 유형의 학술정보가 더 중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학술단행본과 학술지 논문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이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비교적 짧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 학술단행본은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자세하게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한다(Kivistö and Pihlström 2015, 1). 이러한 측면에서 학술단행본은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한 성과물로 학술지 논문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성과 평가가 학술지 논문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학술단행본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대학 교수 및 연구자의 임용과 승진, 그리고 연구비 지원을 위한 업적 평가에서 학술단행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 영역에서 연구자들이 학술지 논문 작성에 몰두하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비교적 표준적인 심사 과정이 정착되어 있으며, 논문의 물리적인 형식 및 분량에 있어서도 역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크다. 이에 반해 단행본의 경우 내용의 수준 및 품질에 대한 표준적인 심사 과정이 없으며 형식 및 분량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주관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학술지의 경우 전자학술지로의 이행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학술단행본의 경우 아직도 전통적인 인쇄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학술지 논문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학술단행본과 관련된 연구는 그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관련된 몇몇 연구(이영자 1981; 송정숙 1998)는 상당히 오래 전에 발표된 것들이다. 이는 연구성과물의 작성에 있어 학술단행본보다 학술지 논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과 더불어, 전자학술지 가격의 상승, 소수의 대형 출판사에 의한 과점현상 등으로 인한 도서관 예산의 문제,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제반 이슈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 까닭이다. 또한 학술지 논문의 생산, 이용에 대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도 있다. 이에 반해 학술단행본의 경우 전자출판이 일반화된 현재에도 여전히 인쇄출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판과 이용에 대한 데이터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연구성과물로서 학술단행본의 중요성과 비중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고는 하나 학술단행본은 여전히 연구 활동 중 발행된 산출물 중 매우 중요한 업적이자 연구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술단행본 출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대학출판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출판 영역의 경우 출판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독립채산제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 연구업적 출판에 있어서 학술지와 경쟁 등의 요인으로 지식 생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상업성이 낮은 학술도서를 지속적으로 출판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학술단행본이 대학출판부를 통해 어떤 규모 혹은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학술단행본 출판의 전반적인 규모와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내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출판부의 단행본 출판 규모를 살펴보고 학술단행본 출판에 대한 총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의 핵심 주제인 학술도서로 전공강의교재나 학술교양도서가 아닌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을 주된 독자로 저술된 학술단행본(scholarly monograph)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국내 대학출판부의 출판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학술단행본의 정의와 의의

학술단행본 혹은 학술저서를 간단히 정의하 기란 쉽지 않다. 동일한 주제분야의 학술연구자

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책을 학술단행본이라 쉽게 판단 내릴 수도 있겠으나 역시 그 과정에서 학술단행본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련 용어로 전문학술저서, 일반학술저서, 일반저서와 같은 구분이 있다(정연경, 최윤경 2011).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scholarly monograph라는 개념과의 일관성을 위해 학술단행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학술단행본은 학술 활동의 결과물로서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과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 하지만 단행본 내에서 어떤 것을 학술단행본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을 학술단행본이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도서관의 관점에서 단행본은 정기간행물, 즉 일정한 주기에 따라 출판되는 발간물과 구분된다. 즉 특정 시점에 출판된 책 형태의 발간물을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책의 형태로 출판되는 참고문헌은 단행본과는 별개로 취급된다. Campbell, Pentz and Borthwick(2012, 115)에 따르면 단행본은 참고도서의 형태가 아닌, 즉 기존의 자료를 추출해서 편집한 형태가 아닌, 1차 소재(primary material)의 형태이다.

중종 대학 내에서 연구자들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술단행본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저술”과 같은 간략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¹⁾ 미국의 대형 연구

1) 고려대학교 교무처에서 교원 임용과 관련되어 제시한 기준(“학술 논문 및 학술단행본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술저서란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저술”로 이는 다시 전문학술저서, 일반학술저서, 국내학술저서, 국외학술저서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과 관련된 행정규칙(교육부고시 제2011-34호, 2011.11.18.)에서도 저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며 서평, ...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행정규칙/박사학위>

도서관 중의 하나인 일리노이대학에서는 학술 단행본의 특징을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로 학구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쓰여진 단권의 책이라고 정의한다.²⁾ 또 다른 대형 도서관인 토론토대학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에서 위의 특징과 더불어 대개 이런 책들이 대학출판부나 학술단체, 독립적인 학술출판사에 의해 출판된다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³⁾

Kivistö and Pihlström(2015)는 책 자체의 특징으로써 학술단행본은 장(절)을 갖춘 서술식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내용에 있어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단행본의 범주는 대개 일반교양서적, 대학교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술단행본도 대학 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된 독자층은 자신과 같은 분야에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학술단행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보다 세분화된 것이어야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몇 페이지 이상이 되어야 단행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몇 십 페이지로만 구성된 책도 학술단행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100 페이지 이상의 저작이 학술단행본으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Kivistö and Pihlström 2015, 1).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술지 논문, 특히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선호한다. 왜냐하면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 랭킹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 있고,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타논문에서의 인용 등을 통해 연구업적의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술단행본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출판된 대학출판부 혹은 여타 출판사의 명성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우 예외적으로 학술단행본이 많은 부수로 팔릴 경우(예: Harvard University Press에 의해 출판된 Thomas Piketty 교수의 『21세기의 자본』) 그 판매부수로 인한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학술단행본의 경우 그 속성상 비교적 소수의 동료 연구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의 학술단행본은 대학출판부에 의해 출판된다. 즉 대학출판부는 대학의 지식 창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단행본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을 출판하며, 이로 인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업출판사와는 구별된다. 물론 대학출판부가 이익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으며 가급적 많은 수의 전문가에게 읽힐 수 있는 원고를 선택하겠지만 대학출판부의 주된 목적이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해외의 유명한 대학출판사의 경우 전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방대한 출판사업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예: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

학술단행본이 출판되고 또 활용되는 정도는 학문 분야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학술단행본은 가장 중

과정설치를위한교원연구실적인정범위및기준).

2) 일리노이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Identifying a scholarly monograph"
<<http://www.library.illinois.edu/learn/research/monograph.html>>

3) 토론토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Comparing scholarly and non-scholarly elements"
<<http://guides.library.utoronto.ca/c.php?g=250684&p=1679932>>

요한 연구업적 및 활용되는 학술정보원으로 인정되어 왔다(Gould 1988).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공학 분야의 경우 학술단행본은 학술지 논문과 비교할 때 그 중요도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할 수 있겠다. 물론 같은 인문학 분야에서도 학술단행본이 더 중요하게 혹은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들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모든 연구 분야에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조차 학술지 논문에 연구업적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으며(교수신문 2014.5.12),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학술단행본을 연구 업적으로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도 학술단행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4).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학술단행본, 학술지 논문,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라고 할 때 이미 학술지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상당 부분 전자화되어 있으며, 연구자들의 정보 이용도 인쇄형태의 논문 읽기가 아닌 전자형태의 논문 사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학술단행본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인쇄 형태로 남아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의 대학출판사에서는 상당수의 학술단행본에 대해 전자책이나 pdf 파일과 같은 형태로 출판, 판매 혹은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출판부의 경우 전자형태의 학술단행본 출판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

으로 평가된다.⁴⁾ 학술단행본이 향후 E-book 형태로 대거 전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진행 중(Steele 2008; Schonfeld 2013)이다.

2.2 국내 대학출판부의 현황

국내 대학출판부는 1950년 이전에는 2개의 대학출판부가 존재하였으며(한국대학출판부협회 2011, 15) 1970년대와 80년대에 30개 이상의 대학출판부가 설립되어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6년 현재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는 65개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⁵⁾ 대다수의 대학출판부는 소속 직원이 평균 5명 이하, 연매출 10억원에 못 미치는 영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김정규 2015). 2010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운영형태별로는 내용이 파악된 총 46개 대학출판부 가운데 27개를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곳이 15개 그리고 별도의 법인으로 조직된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출판부협회 2011).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출판부의 경우에는 발간하는 도서의 대부분이 학술단행본 위주인데 비해 국내 대학출판부의 경우에는 학술단행본 이외에 전공교재 및 교양도서의 출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국내 학술단행본 시장 규모가 매우 영세해서 학술단행본 위주의 출판으로는 대학출판부 운영이 매우 어렵고 대학출판부가 외부 집필진을 유치하는 것보다 소속 기관 교수나 연구자들을 저자로 유치하거나 반대로 교

4) 한국대학출판부협회의 2010 대학출판부 연감에 따르면 2009년에 338종의 전자책이 발행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는 전체 발간 도서 989종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5)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홈페이지. <<http://www.akup.co.kr/>>

수나 연구자의 요청으로 강의교재, 교양도서를 내부적으로 출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출판부 발간 도서의 저자 소속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대학출판부 1곳 그리고 한국의 대학출판부 1곳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Duke 대학의 2015년 가을/겨울 카탈로그에 포함된 66종의 단행본에 대해 저자 소속을 조사한 결과 듀크대 교수 단독 저서 2종, 듀크대 교수 및 타대학 교수 공저 2종으로 듀크대 교수의 저작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책의 저자 소속을 분석하면(주저자 기준) 미국, 캐나다 소재 대학 교수에 의한 저작이 56종, 해외대학 교수 저작이 9종, 그리고 교수 이외의 저자 저작이 6종으로 구분된다. 비교를 위해 국내 고려대학교의 2013-2014년 도서목록을 살펴보면 저자 정보가 포함된 총 37종의 단행본 중 34종의 저서가 고려대학교 교원 혹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연구자에 의해 저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1의 사례조사이기는 하지만 위의 예를 보면 국내 대학출판부의 학술도서 출판이 거의 전적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자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술도서의 발간이 대학출판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상업출판사들도 각종 전공교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술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업출판사에 의한 학술도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출판연감 최신 조사 자료(2014년 기준)⁶⁾에 따르면 조사에 포함된 총 3,614개의 출판사 가운데 학술 및 전

문서 출판사는 1,001개로 28%에 육박하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규모 측면에서는 전체 출판시장 매출액인 4조 2,306억원 중 5.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술출판사가 영세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선정하는 우수 학술도서 목록⁷⁾을 보면 2015년에 총 295개의 도서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28개 도서(9.5%)가 대학출판부에서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도의 경우 대학출판부 도서의 우수 학술도서 선정 비율이 9.6%로 나타난다. 전체 우수 학술도서 중에서 대학출판부 도서의 비율을 가지고 학술도서 시장에서 대학출판부의 비중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대학출판부 외에도 학술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2.3 관련 선행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단행본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특히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출판방식에 관한 것들이다.

출판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미래에 출간되는 학술단행본이 새로운 전자 출판 발전을 통해 학술단행본에 대한 큰 접근점을 제공하고(Steele 2008), 소비자 수요에 따라 제작이 주도되는 전자책들이 결국에는 교육과 학술단행본의 포맷으로 자리 잡게 될 것(University College London 2008)을 언급하고 있다.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5년 12월 16일 주최한 2015 출판산업 콘퍼런스 - 통계 발표 및 미래 전략 - 자료에 근거한 것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원문 입수. <<http://www.kpipa.or.kr/>>

7)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에서 매년 선정된 우수학술도서 목록 입수. <<http://www.nas.go.kr/>>

또 다른 연구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탄생된 기회와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학술단행본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고안하고자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Brown(2007)은 행정가, 출판디렉터, 사서 및 캠퍼스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온라인 출판으로의 진전 상태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Withey(2011)은 현재 학술단행본 출판 시스템의 요소를 찾고 기존 프로젝트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탐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Griffiths and Rascoff(2005)는 출판디렉터, 출판 스텝들과 학술단행본 출판계에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POD(Print On Demand)와 SRP(Short Run Printing)에 이용되는 방식 및 출판 형식들이 출판 경제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단행본 포맷들과 관련된 선호도 및 행태와 관련된 연구로는 Schonfeld(2012; 2013)의 연구가 있다. Schonfeld(2012)는 2012년 가을에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술단행본에 대한 그들의 포맷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응답자들 대다수가 자료를 하나하나 읽거나 아니면 한 섹션을 심도 있게 읽을 경우에는 전자 형태보다는 종이 형태의 학술단행본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학술단행본 포맷의 이용자 선호도와 행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Schonfeld(2013)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전자책을 하나의 출판 포맷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버전의 출판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로는 이영자(1981), 송정숙(1998), 박명희(2006), 권영자(2012)의 연구 등이 있다. 이영자(1981)는 학술단행본의 주된 생산자로서의 대학출판부의 정체성과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송정숙(1998)은 부산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 경험이 있거나 출판 예정인 교수 2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부산대학교 출판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박명희(2006)는 국내외 대학 출판부들의 운영 실태를 출판 시장의 현황을 통해 분석하였고, 권영자(2012)는 서울대학교 대학출판부와 일본의 도쿄대학 대학출판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두 나라 대학출판부의 대응책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국내 대학출판부의 단행본 출판 규모를 가늠하고 특히 학술단행본 출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대학출판부의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한국대학출판협회에 소속된 65개 대학출판부 중 강의교재 출판 비중이 높은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64개의 대학출판부 서지데이터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2015년까지 발행된 단행본 도서로 제한하였다.

수집된 서지데이터를 대상으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후 전체연도별 발간 추이 및 주제분야별, 저자유형별 발간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술단행본 기준을 선정하여 지침을 만든 후 최종 정제된 서지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술단행본 여부를 추정하였다.

3.1 국내 대학출판부 단행본 출판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발행자”를 각 대학명으로 하여 최초 검색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연도”,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 곳”과 관련한 서지데이터에 대한 도서목록을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내 대학출판부의 협의체인 한국대학출판부협회에서 안정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워서이다.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홈페이지에 일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도서관법 제 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

본”하도록 되어 있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대학출판부의 단행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초로 수집된 원천 데이터의 총 수는 22,263건이다. 그 중 2000년까지의 서지데이터가 8,918건, 2001년 이후 데이터가 13,345건이다.

수집된 22,263건의 원천 데이터는 중복 서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정제는 Excel과 Open Refine을 사용하였고, 주요 정제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중복된 서지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표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 제목 여부를 판단하였고, 중복 서지로 판단되는 경우 Open Refine의 Cluster 기능을 사용하여 통합(Merging)하는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정제 과정을 진행한 후의 데이터 수는 21,015건이다. 그 중 2000년까지의 서지데이터가 8,387건, 2001년 이후 데이터가 12,628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데이터를

<표 1> 대학출판부 출판 단행본 데이터 정제의 유형별 정리

메타데이터명	정제 내용	정제 예시
발행자 (출판부명)	- 시대에 따라 출판부명이 변화되었거나, 이명이 존재하는 경우 한국대학출판협회의 현재 대표명으로 변경 - 띄어쓰기 및 오타자 수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出版部 사람의무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SKKUP: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로 통일
발행년도	- 다권본의 일부 중복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권의 발행년도로 조정 - 띄어쓰기 및 오타자 수정	말하기 쉬운 한국어. 3-6, 9-10 (2001-2004) → “2001”로 조정
표제	- 동일 제목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 하나의 제목으로 통일 - 띄어쓰기 및 오타자 수정	(생활 속의) 응급처치 생활 속의 응급처치 → “(생활 속의) 응급처치”로 통일
중복 서지	- 위의 정제 작업 완료 후 표제, 발행년도, 저작자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1개의 서지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 - 발행년도가 1년 차이나는 경우에 한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와 비교하여 중복 데이터인 경우 위와 동일하게 처리(ISBN 확인)	古書目錄, 成均館大學校中央圖書館編.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9. 동일 서지 존재하여 삭제

〈표 2〉 데이터 정제 이전 및 이후 서지 레코드 수

연도	정제 이전 데이터 수	제거 데이터 수	정제 이후 데이터 수
~2000	8,918	531	8,387
2001~2015	13,345	717	12,628
계	22,263	1,248	21,015

2000년 이전과 2001년 이후로 구분한 이유는 2001년 이후에 발행된 도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이다. 따라서 더 명확한 추정을 위해 학술단행본 추정은 2001년 이후의 서지데이터로 제한하였다. 또한 추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부득이 2001년 이후로 해당 분석을 제한하였다.

3.2 학술단행본 추정

학술단행본 추정은 명확한 추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초의 작업은 구체적인 학술단행본 추정 기준 지침을 만드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일리노이대학 도서관의 기준을 최초의 기준으로 하여 3인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학술단행

본 추정을 수행하였다. 1차 추정 작업은 기본적인 발간 추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최초의 기준을 토대로 한 좀 더 명확한 학술단행본 추정 기준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 1차 학술단행본 추정 작업은 정제된 데이터 중 약 100개의 레코드 수를 가진 “중앙대학교출판부”와 “충북대학교출판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학술단행본 추정 결과 상호작업자 3인 간의 일치율이 각각 72%, 63%로 나타났다.

1차로 추정작업 이후 상호 작업자 간에 학술단행본 기준에 대한 재협의 과정을 거쳐 〈표 3〉과 같은 학술단행본 추정 기준을 재설정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설정된 학술단행본 추정 기준을 토대로 “충북대학교출판부”와 “중앙대학교출판부”의 학술단행본을 재추정한 결과 작업자간 84%⁸⁾의 비교적 안정된 일치

〈표 3〉 학술단행본 추정 기준 설정

추정 시기	기준 내용
1차 추정 시 기준	• 1권의 도서로 발행된 학술도서 • 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함 • 전공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 학술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 • 구성상 장(절)을 갖춘 서술식 기술을 하고 있는 학술도서 • 대학교재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2차 추정 이후 추가된 기준	• 대중성이 낮은 도서 • 고전번역서 중에서도 교재의 성격을 갖지 않은 도서 • 도서의 제목이 구체적인 주제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다권본이어도 학술적 특성을 가진 도서 • 대학교재로 사용 되더라도 내용상 학술단행본의 특성을 가진 도서

8) 이 경우 3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 2차 추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값임.

을 보여 이 기준을 가지고 3인의 연구자가 수집된 정보를 분담하여 학술단행본 추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 진행 중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추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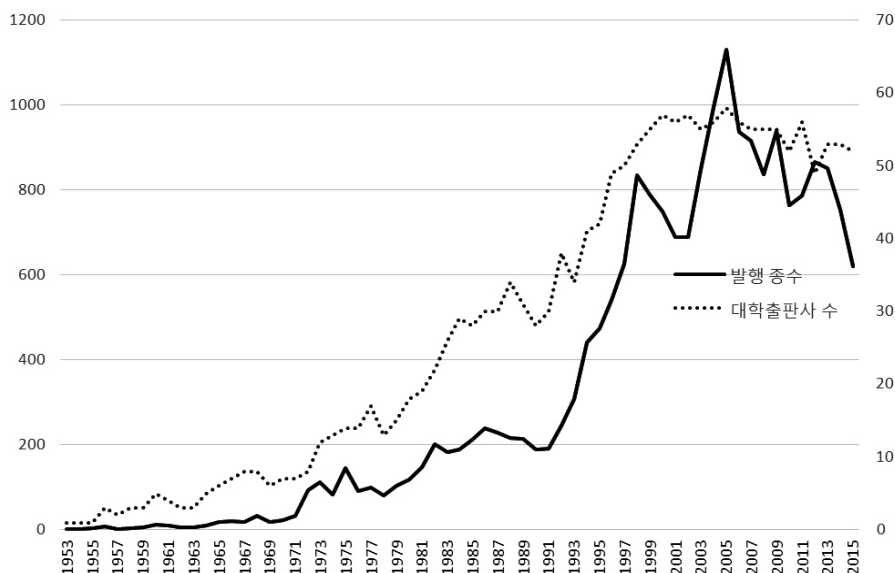
3.3 국내 대학출판부의 단행본 출판 현황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목록에 포함된 국내 64개 대학출판부의 단행본 정보에서 중복된 서지정보를 제거하고 목록정보를 보완하여 총 21,015건의 단행본에 대한 서지정보목록을 추출하였다. 이 목록에 처음 등장하는 대학출판부 발간 단행본은 1953년에 중앙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최태영의 『(현행)어음수표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목록에서는 해당 년도의 유일한 대학출판부 발행 도서이다.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은 1953년부터 2015년으로 60년 이상의 국내 대학출판부 발간 내역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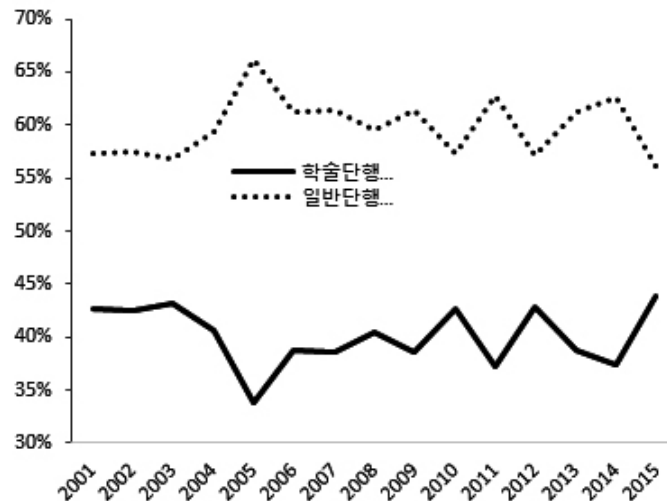
3.3.1 연도별 대학출판부 단행본 발간 추이

195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출판부의 단행본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1950-90년대는 연간 200종 내외의 미약한 발행을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상승기를 거쳐 2005년을 정점으로 현재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출판이 가장 활발했던 2005년에 발행된 단행본 수는 1,131종으로 이는 58개 대학출판부를 대변한다. 데이터에 포함된 대학출판부의 숫자 역시 2005년에 정점을 찍고 현재 50개 초반의 대학출판부가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다.

대학출판부에서 발간하는 도서를 학술단행본과 일반단행본으로 추정해서 분석한 2001년 이후 출판 추이(비율로 표시)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학술단행본 추정 결과 2001년 이후에 발간된 단행본 중에 학술단행본으로 추정된 도서는 전체 12,628종 중에서 5,034종, 일반단행본으로 추정된 도서는 7,594종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1〉 대학출판부의 연도별 단행본 발간 추이(1953-2015)



〈그림 2〉 대학출판부의 연도별 학술단행본 발간 비율 추이(2001-2015)

이를 보면 국내 대학출판부가 가장 많은 도서를 발간한 2005년에 일반단행본의 비율(66.2%)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일반단행본과 학술단행본의 비율이 약 6:4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출판부의 출판은 학술단행본 보다는 교양 관련 서적, 어학교재, 학부강의교재 등의 일반단행본 출판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3.3.2 대학출판부별 단행본 발간 추이

〈표 4〉는 한국대학출판부협회 소속 대학출판부들의 단행본 발간 실적을 보여준다. 표를 보면 상위 10개 대학출판부의 발간 비중이 전체의 약 46%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간된 한국대학출판부협회 소속 대학출판부들의 단행본에 대한 학술단행본 추정 결과를 보면 개별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출판 비율의 평균은 4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대학출판부가 10종의 단행본을 발간하는 경우 그 중 약 4종이 학술단행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6종은 어학교재, 교양 혹은 강의교재 등이라는 것이다. 12개 대학출판사의 경우 학술단행본 발간 비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는 학술단행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상위 10개 대학출판부와 추정비율을 보여준다. 상위 3개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발간 추정비율은 70%를 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된 대학출판부와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9) 한국대학출판부협회가 발간한 『2010 대학출판부 연감』에 포함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간된 총 989종의 도서 가운데 학술도서가 288종(29%), 교양교재 115종(11.6%), 전공교재 401종(40.5%), 교양도서 185종(18.7%)의 비중을 보인다.

〈표 4〉 발행권수 기준 상위 10개 국내 대학출판부(1953~2015)

순위	출판부	종수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597
2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016
3	전남대학교출판부	961
4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942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936
6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916
7	계명대학교출판부	652
8	건국대학교출판부	577
9	영남대학교출판부	511
10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499
	합계	9,607

〈표 5〉 학술단행본 추정 비율 상위 10개 국내 대학출판부(2001~2015)

순위	출판부	학술단행본 추정 비율
1	서강대학교출판부	72.8%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0.3%
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70.2%
4	동국대학교출판부	64.8%
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61.2%
6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57.7%
7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55.0%
8	한신대학교출판부	51.7%
9	충북대학교출판부	50.5%
10	부산대학교출판부	47.5%

3.3.3 저자유형별 단행본 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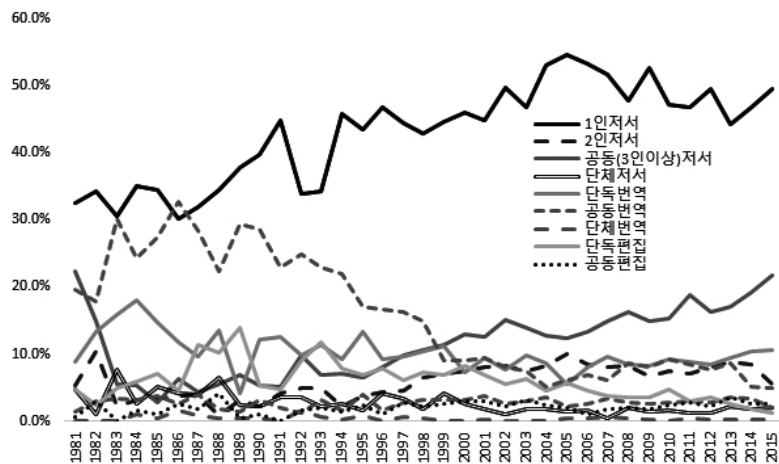
학술도서는 다른 종류의 단행본과 비교할 때 저작, 번역, 편집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유형별 대학출판부 전체 발간도서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저자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저자유형 범주화에는 〈표 6〉과 같은 기준이 사용되었다. 〈그림 3〉은 대학출판부의 출판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81년부터 2015년까지의 다양한 저자유형의 추이를 보여준다.¹⁰⁾ 〈그림 3〉을 보면 1인 저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또 그 비중도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981년 32.4%에서 2015년 49.4%). 반대로 단체 편집 저서(연구소나 학과 단위의 편집 저서)의 경우 80년대에는 20-30%의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현재는 5% 미

10) 저자 유형에 대한 추이 분석을 전체 대상 기간이 아닌 1981년 이후 기간으로 한 것은 1981년 이전의 단행본 발간 숫자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발간 수치가 아닌 비율 분석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에 의한 가변성이 높은 것을 방지하고자 저자 유형에 대한 분석은 대상 기간을 달리 하였다.

〈표 6〉 저자유형 범주화 및 분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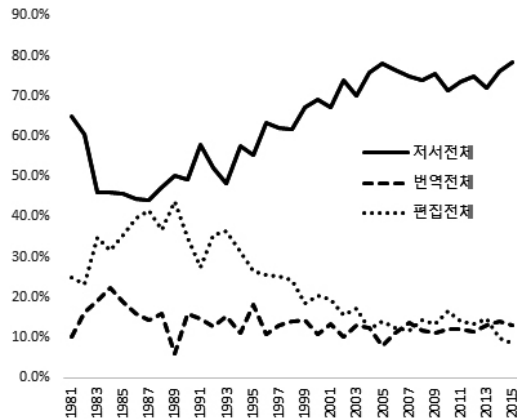
정제 유형	범주명	기준
범주명 규정	단독저서	• 1인의 저자
	2인저서	• 2인의 저자
	공동(3인 이상)저서	• 3명 이상의 저자 • 한 사람의 이름과 “등저”, “등 지음”, “외 지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단체저서	• 연구소, 학과, 센터 등의 저자 • 공동저자와 단체저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단독편집	• 1인의 편저자
	공동(2인 이상)편집	• 2인 이상의 편저자
	단체편집	• 연구소, 학과, 센터 등의 편저자 • 공동편저자와 단체편저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을 경우
	단독번역	• 1인의 번역자
	공동(2인 이상)번역	• 2인 이상의 번역자
	단체번역	• 연구소, 학과, 센터 등의 번역자 • 공동번역자와 단체번역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을 경우
기타 처리 규칙	편집	• 엮음, 주해(注解), 편주(編註), 교주(校註,校注), 편해(編解), 해독(解讀)
	번역	• 편역(編譯), 역주(譯註)



〈그림 3〉 대학출판부의 저자 유형별 발간 추이(1981-2015)

만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3인 이상의 공동저서는 1981년에는 22.3%의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상당 기간 1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는 약 20% 수준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전체 도서를 저서, 번역서, 그리고 편집서로 크게 구분하여 보여준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저서는 증가 중이며, 편집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번역서는 비교적 일정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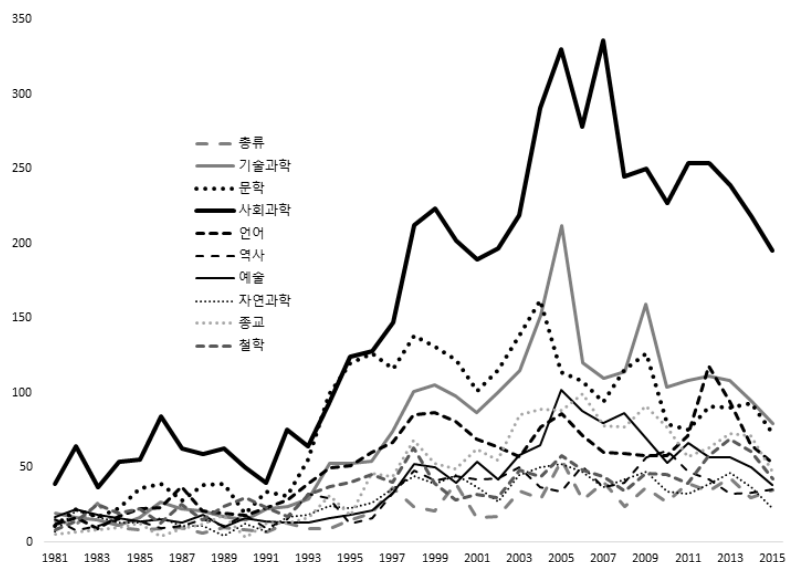


〈그림 4〉 대학출판부의 저자 유형별(요약) 발간 추이(1981-2015)

3.3.4 주제분야별 단행본 발간 추이

〈그림 5〉는 198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간된 대학출판부 도서의 분야별 발간종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사회과학 도서의 발간이 가장 활발하며 다음으로 기술과학과 문학 주제 분야 발간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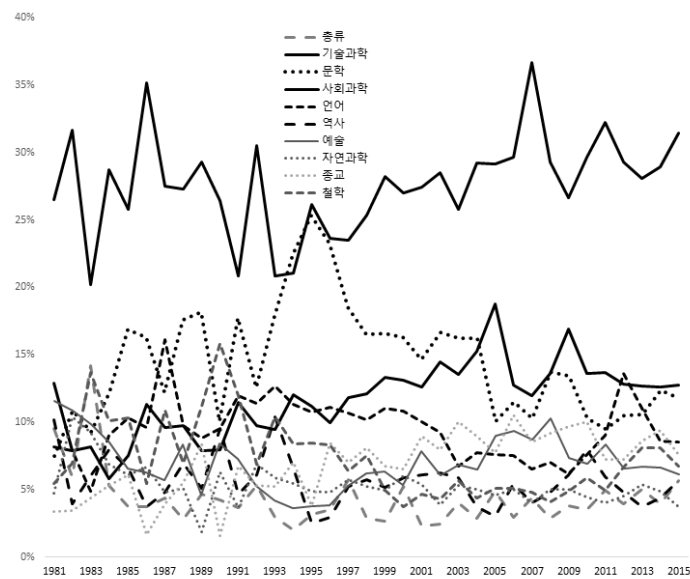
〈그림 6〉은 주제별 발간종수를 해당 연도에 서 각 주제별 발간비율로 다시 계산해서 보여준다. 역시 사회과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2015년 기준 28%), 그 다음으로 기술과학(13%), 문학(12%)의 순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참고도서에 해당하는 총류의 발간비율은 4%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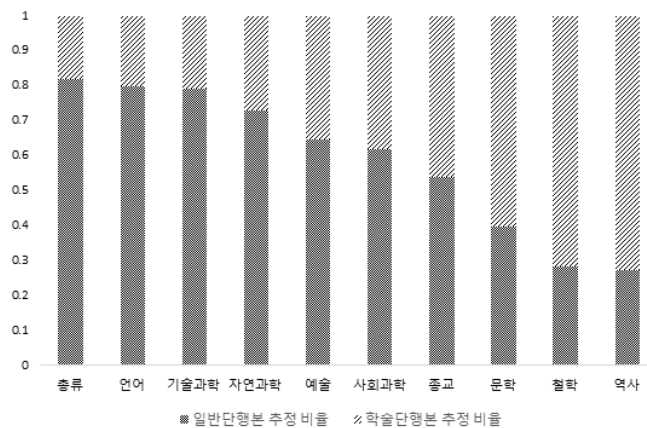
〈그림 5〉 대학출판부의 분야별 단행본 발간 추이(1981-2015)

일반단행본과 학술단행본 추정 비율에 따른 주제분야별 비교는 <그림 7>이 보여준다. 대상 기간은 학술단행본 추정 분석이 수행된 2001-2015년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언어 및 과학 분야에서 일반단행본 추정 비율이 70%대로 가장 높고, 반대로 철학과 역사 분야에서는 학술단행본 추정

비율이 2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야별로도 학술단행본 출판 비중이 매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발간 권수가 가장 많은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단행본과 학술단행본 발간 비중이 분야 전체의 비중과 비슷한 6:4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대학출판부의 분야별 단행본 발간 비중 추이(1981-2015)



<그림 7> 주제분야별 일반단행본과 학술단행본 발간 비중 추이(2001-2015)

4. 결 론

학술단행본은 오랜 동안 지식의 표현과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다. 하지만 최근 정량적인 연구 성과 평가가 강조되고 학술정보의 이용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 학술단행본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상업성이 낮은 학술 및 전문도서를 출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발간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출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출판부 단행본 출판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활용해서 한국대학출판부협회 소속 대학출판부 발간 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였다. 총 21,015건의 서지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특히 대학출판부 발간 도서 가운데 학술단행본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술단행본 식별 기준을 마련해서 학술단행본 추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단행본 출판은 1990년대에 급격한 상승기를 거쳐 2005년을 정점으로 현재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술단행본 추정 작업을 통해 최근 15년 동안의 단행본 출

판을 분석한 결과 대학출판부의 출판은 학술단행본 보다는 어학교재, 강의교재 및 교양 관련 서적 등의 일반단행본 출판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6:4의 비율). 또한 상위 10개 대학출판부의 발간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대학출판부 간에 학술단행본 발간 비중도 상위 대학출판부와 하위 대학출판부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학출판부 발간 도서의 저자 유형을 살펴보면 1인 저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편집 저서의 경우 그 비율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번역서의 경우는 조사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제분야별 출판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과학 도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술단행본 출판 비율은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계량적인 차원에서 국내 대학출판부의 전반적인 출판 규모와 내용을 조사하였고 특히 학술단행본의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학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화 과정에서 학술단행본의 생산, 축적 및 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대학출판부가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학술단행본 출판 기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online] [cited 2016. 4. 1.] <<http://www.nl.go.kr>>
- [2] 권영자. 2012. 한·일 대학출판부 출판 활동의 실증적 비교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8(1): 5-31.
- [3] 출판전문가 중심으로 재편 ... 한국대학출판협회 역할 확대해야. 2015. 『교수신문』. 10월 6일. [online] [cited 2016. 5. 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45>>
- [4]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국내 9개 대학출판부의 출판 활동. 『출판저널』, 240: 10-11.
- [5] 박명희. 2006. 『한국 대학 출판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6] 박용두, 홍이현. 2005. 대학출판부,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출판저널』, 352: 36-38.
- [7] 송정숙. 1998. 학술정보전달시스템으로서 대학출판부의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출판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8: 137-170.
- [8] 이영자. 1981.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8: 155-184.
- [9] 인문학 연구성과 저술 중심으로 평가하자. 2014. 『교수신문』. 5월 12일. [online] [cited 2016. 5. 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887>>
- [10] 정연경, 최윤경. 2011. 인문·사회과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2(3): 211-233.
- [11] 한국대학출판부협회. 2011. 『2010 대학출판부 연감 / 신간도서목록』. 서울: 한국대학출판부협회.
- [12] 한국연구재단. 2014. 『인문학분야 학술성과 평가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13-013-인문학.
- [13] Borgman, C. L. 2007.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MA: MIT Press.
- [14] Brown, L. et al. 2007. "University Publishing in a Digital Age."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10(3): 1-69.
- [15] Campbell, R., Pentz, E. and Borthwick, I. 2012. *Academic and Professional Publishing*. Burlington: Elsevier.
- [16] Duke University. 2015. *Duke University Books & Journals: Fall & Winter 2015*. [online] [cited 2016. 6. 5.] <https://issuu.com/dukeuniversitypress/docs/fall_15_catalog_final?e=9530093/12818148>
- [17] Griffiths, R. J. and Rascoff, M. 2005. *The Evolving Environment for Scholarly Electronic*

- Monographs*. New York: Ithaka S+R. [online] [cited 2016. 6. 19.]
 <<http://www.sr.ithaka.org/wp-content/uploads/2015/08/4.3.1.pdf>>
- [18] Gould, C. C. 1988. *Information Needs in the Humanities: An Assessment*. CA: Research Libraries Group.
- [19] Kivistö, S. and Kihlström, S. 2015. *The Monograph*. Helsingfors: University of Helsinki. [online] [cited 2016. 4. 5.]
 <<http://www.helsinki.fi/collegium/events/monografia/monografia.pdf>>
- [20] Schonfeld, R. C., Housewright, R. and Wulfson, K. 2012. *Ithaka S+R US Faculty Survey 2012*. New York: Ithaka S+R. [online] [cited 2016. 6. 5.] <<http://j.mp/14477fF>>
- [21] Schonfeld, R. C. 2013. *Stop the Presses: Is the Monograph Headed toward an E-Only Future*. New York: Ithaka S+R. [online] [cited 2016. 5. 18.]
 <http://www.sr.ithaka.org/wp-content/mig/files/SR_BriefingPaper_Presses_120913.pdf>
- [22] Steele, C. 2008. "Scholarly Monograph Publishing in the 21st Century: The Future More than Ever Should Be an Open Book."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11(2). [online] [cited 2016. 4. 5.] doi: <http://dx.doi.org/10.3998/3336451.0011.201>.
- [23] University College London. 2008. *Information Behaviour of the Researcher of the Future*. [online] [cited 2016. 4. 18.] <<http://www.publishing.ucl.ac.uk/behaviour.html>>
- [24] Withey, L. et al. 2011. "Sustaining Scholarly Publishing: New Business Models for University Presses: A Report of the AAUP Task Force on Economic Models for Scholarly Publishing."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42(4): 397-44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Homepag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online] [cited 2016. 4. 1.] <<http://www.nl.go.kr>>
- [2] Kwon, Youngja. 2012. "Comparative Empirical Study on the Publication Activities of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ies: Focusing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and University of Tokyo Press." *Korean Publishing Science Society*, 38(1): 5-31.
- [3] "Reorganize around Publishing Experts ... Expand the Role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s." 2015. *The Kyosu Shinmun*. October 6th. [online] [cited 2016. 5. 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45>>
- [4]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1998. "Publishing Activities of Nine University Presses." *The*

- Korean Publishing Journal*, 240: 10-11.
- [5] Park, Myung-Hee. 2006.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s of University Press in Korea*. M.A. thesis, Major in Publishing,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and Public Relations, Konkuk University, Korea.
- [6] Park, Yong-Du and Hong, Lee-Hyeon. 2005. "University Press for a New Start."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352: 36-38.
- [7] Song, Jung-Sook. 1998. "The Activ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Press as a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The Case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137-170.
- [8] Lee, Young-Ja. 1981. "The University Press as a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8: 155-184.
- [9] "Changing Performance Assessment of Humanities Research based on Scholarly Monograph Publication." 2014. *The Kyosu Shinmun*. May 12th. [online] [cited 2016. 5. 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887>〉
- [10] Chung, Yeon-Kyoung and Choi, Yoon-Kyung. 2011. "A Study on Faculty Evalu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3): 211-233.
- [11]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ses. 2011. *2010 University Press Annual Book / List of New Publications*. Seoul: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s.
- [12]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2014. *A Study on the Standard Model for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Humanities*. Daeje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